



## 6월 광고경기 전월 대비 상승세

6월 국내 광고경기는 5월 대비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다.

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(이후 KOBACO)는 국내 4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광고경기예측지수(KAI)를 조사한 결과 6월 예측지수가 113.0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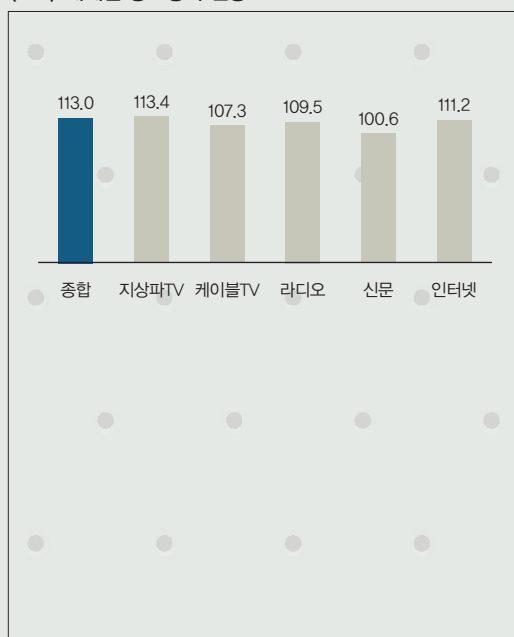
이는 세월호 사고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및 내수경기 부진으로 지난달 광고시장은 침체되었으나, 스포츠 빅이벤트인 브라질 월드컵과 공공부문 투자 조기집행 등 정부의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기업들의 광고마케팅에 대한 기대심리가 지수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는 게 KOBACO측의 설명이다.

월별 KAI가 100을 넘을 경우 광고비 증가가 예상된다는 의미이고, 100 미만은 광고비 감소가 예측됨을 의미한다.

매체별로는 지상파TV(113.4), 케이블TV(107.3), 라디오(109.5), 신문(100.6), 인터넷(111.2) 등으로 조사됐으며, 업종별로는 증권 및 자산운용(151.3), 수송기기(141.4),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(137.8) 등의 업종에서 광고비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, 패션(54.1), 유통(65.4), 건설 건재 및 부동산(89.9) 등의 업종에서는 광고비 감소가 예상됐다.

광고경기예측지수조사(KAI :Korea Advertising Index)는 방송광고비를 포함한 국내 주요 광고매체의 경기변동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광고산업 경기를 진단할 목적으로 매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광고주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있다. **KAA**

〈표 1〉 매체별 광고경기 전망



〈표 2〉 업종별 광고경기 전망

